

美·日·中 3角協調体制가北韓에 미치는影響

— The Tripartite Coopeation System among
U. S. - Japan - China and Its Impact upon
the Foreign Policy of North Korea —

보관용
(관리과)

國土統一院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査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収録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美·日·中 3角協調体制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The Tripartite Cooperation System among U. S. - Japan - China
and Its Impact upon the Foreign Policy of North Korea —



研究執筆責任 文道彬

서울신문社 統一安保問題研究所
研究委員 겸 論說委員

刊行責任 尹炯憲 (教育弘報室 補佐官)

國土統一院 政策企劃室

目 次

第1章 序論：問題의 提起	3
第2章 3角協調体制의 背景과 그 性格	5
第1節 3角体制論의 背景	5
第2節 새로운 3角提携 動態	10
第3節 協調体制 存続의 可能性	13
第3章 3角協調体制가 韓半島에 미치는 影響	17
第1節 4強의 韓半島政策展望	17
1. 美國의 韓半島政策	17
2. 日本의 韓半島政策	21
3. 中共의 韓半島政策	25
4. 蘇聯의 韓半島政策	28
第2節 3角協調体制와 南北韓의 対応	30
1. 韓國의 立場	30
2. 北韓의 立場	33
第4章 北韓이 選擇할 外交路線의 몇가지 模型	38
第1節 北韓外交路線의 選擇要因	38
1. 統一政策	38
2. 經濟發展	39
3. 安保問題	40
4. 第3世界 外交	41

第2節 北韓이 選擇할 可 있는 外交路線 模型	42
1. 反中共・親蘇路線	42
2. 親中共・反蘇路線	46
3. 對中・蘇 嚴正中立路線	50
第5章 結 論	55
要 約	58

美·日·中 3角協調體制가

北韓에 미치는 영향

第1章 序論：問題의提起

國際體制가 크게 개편되어가고 있다. 戰後에 出現했던 美·蘇의 兩極體制가 60年代初에는 美·蘇·中共의 3極體制로 바뀌고, 70年代初에는 美·蘇·中·日의 4極體制로 바뀌었음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있는 事實이다. 그런데 이 4極體制에 이제 상당한 變化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 變化의 內容과 方向에 대해 定說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國際體制가 특히 아시아라는 地域的 視角에서 볼때, 蘇聯 對 美國·中共·日本의 1對3의 對決體制로 바뀌어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대체적인 觀測이다.

물론 복잡한 성격의 國際體制를 그렇게 보는 것은 지나친 單純化라는 評價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가령 德탕트를 깨뜨릴 形便에 있지못한 美·蘇의 立場이나, 또는 蘇聯과 지속적인 對決狀態를 유지하기 어려운 日本의 軍事的 脆弱性을 고려한다면 과연 蘇聯에 대항하는 美國과 中共 및 日本의 3角同盟體制를 기대할수 있겠느냐는 反論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全般的으로 보아 美國과 中共 및 日本사이에는 同盟體制는 아니라해도 提携體制가 形成되어가고 있으며 그 提携體制가 기본적으로 反蘇의 性格을 지니고 있다는 評價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이 새로운 3角提携體制에 대한 蘇聯의 反

이 점차 날카로와지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이러한 國際環境속에서 中國共産黨의 副主席이며 中共政府의 副首相으로서 오늘날 中共의 사실상의 제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鄧小平이 79년 1월하순부터 2월초순까지 美國을 공식방문한 사실은 國際政治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美·中共·日本間의 3角協調體制 탄생에 주요한 걸음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3角協調體制의 形成이 南北韓 關係 및 韓國의 對外關係와 安保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다. 이에 本稿는 이 3角協調體制의 背景과 그것이 韓半島에 미치는 영향, 특히 北韓의 外交政策路線에 미치는 영향을 評價해 보고자 한다.

第2章 3角協調体制의 背景과 그 性格

第1節 3角体制論의 背景

3角体制論에 관해 아마도 맨처음으로 이론적 構想을 제시한 사람은 Gene T. Hsiao였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論文(註1)에서 「美國의 支援을 받는 中·日共同核力の 樹立」(The establishment of a joint Sino-Japanese nuclear force with American backing)을 제창한바 있다. 그는 이 体制가 결국 「워싱턴-北京-東京의 樞軸」으로 발전할 것으로 내다 보았는데, 美國은 이를 통해 中共과 日本을 효과적으로 統制할 수 있기 때문에 蘇聯에게도 해롭지 않다고 보았다.

그런데 美·日·中共의 3角協調体制論에 있어서 가장 주목할만한 主張이 美國의 저명한 中蘇關係專門家이며 당시 랜드研究所 研究員이었던 Michael Pillsbury에 의해 75년 가을 開陳되었다.(註2) 물론 그의 主張은 美·日·中共의 3角体制 全般에 걸친 것이 아니라 美·中共의 軍事協力体制에 관한 것이었으나, 美國과 日本이 이미 軍事同盟体制를 형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때 그의 主張은

註1) Gene T. Hsiao, 「Prospects for a New Sino-Japanese Relationship」 China Quarterly, No 60 (December, 1974), pp.739-740.

2) Michael Pillsbury, 「U.S - Chinese Military Ties?」, Foreign Policy, Fall, 1975.

사실상 장자 활발히 논의될 3角協調体制의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었다.

다음에서 Pillsbury의 所論, 즉 美國과 中共은 아시아에 있어서의 蘇聯의 군사위협에 對處하기 위해 가까운 장래에 모종의 「軍事的 紐帶」를 맺을 可能性이 있다는 主張의 개요를 살펴보기로 한다.

Pillsbury 所論의 바탕에는 「한쪽의 오랑캐로서 다른 쪽의 오랑캐를 견제한다」는, 漢族들이 즐겨서서 中原을 지켰던 「以夷制夷」의 外交戰略이 깔려있다. 즉 中共과 손잡고 中共의 軍事力을 키워 주어 對蘇전제력을 높이하는 것이다.

Pillsbury 主張의 核心은 그의 다음과 같은 文章속에 잘 나타나 있다. 「증강된 中共의 군사력이 만일 中蘇國境 근처에 배치되기만 한다면 보다 많은 숫자의 蘇聯 陸·海·空軍力을 中共과의 군사지역에 유도하여 얽매놓을 수가 있을 것이다. 蘇聯의 陸·海·空軍중 거의 4分の1에 해당하는 兵力이 이미 中共國境 근처에 배치되어 있다. 中共軍事力の 증강은 美國의 盟邦들을 공격하는데 쓰일 수 있는 蘇聯의 군사력을 中共의 군사력 증강에 相應하는 비율로 줄이게 될 것이다」이 核心的인 부분에서 우리는 美國版 「以夷制夷」의 外交的 兇想을 보는 것이다.

그러면 美·中共의 軍事紐帶로서 두나라는 각각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Pillsbury는 먼저 中共의 이익을 다음의 두 측면에서 찾고 있다.

첫째, 제트輸送機, 裝甲車輛, 탱크, 제트戰鬪機등의 美國군사장비로

中共의 전투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中共은 적어도 그것이 限界的인 것이라 할지라도 蘇聯의 對中共침공의 희생이 크도록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가지 問題點이 따른다. 中共이 그런 종류의 武器들을 美國으로부터 대규모로 사들일 外貨가 있느냐 하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外貨를 美國으로부터의 武器購入에 배당하기에는 中共으로서의 缺乏 것이다.

둘째, 그러나 실제적인 武器購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관계없이 中共은 美國과의 「군사적 유대」를 강조함으로써 蘇聯에게 심리적 負擔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바꿔 말해, 中共은 공개적인 聲明이나 비밀통로를 통해 蘇聯의 기습공격이 있을 경우 美國의 對中共 군사·정보지원이 약속되어 있다고 蘇聯으로 하여금 믿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中共은 美國과의 「군사적 유대」를 심리적인 次元에서의 抑止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美國이 얻을 수 있는 利益은 무엇인가? Pillsbury는 다음의 세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 美國의 對中共 무기 판매는 美·中共외교관계 수립에 있어서 中共에 대한 확고한 報償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美國의 對中共 군사지원이나 군사판매 계획은 中共의 군사적 急先務로 되어 있는 방위기술을 강화시켜줌으로써 美國과의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中共의 영향력 있는 軍部勢力을 끌어들이게 될 것이다.

둘째, 美國의 對中共 무기·기술제공은 蘇聯의 공격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中共戰略軍의 改善은 中·蘇간 核戰爭의 위

험성을 감소시켜 줄 것이며, 中共이 美國에 대해 전략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힘을 크게 증대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다 安定性 있는 核均衡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세째, 앞에서 인용했던 부분에서 이미 지적되었듯, 中共의 軍事力 증강은 蘇聯군사력을 東北아시아에 固着시켜 놓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그러면 美·中共사이의 「군사적 유대」는 어떤 내용을 가질 것인가? 다시 Pillsbury의 所論을 들어보기로 하자.

첫째, 두나라 軍事專門家 代表團이나 武官 또는 國防長官 등의 相互交流가 고려될 수 있다.

둘째, 직접적인 접촉과 극비의 무선통신 연락등을 포함해 美·中共이 蘇聯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세째, 中共에 대한 美 友邦들의 군사지원을 유도하는 것이다. 마치 49년~50년 사이에 당시 Dean Acheson 美國務長官이 루마니아에 대한 군사지원의 첫 단계조치로 英國과 협조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美國은 友邦國들에게 中共에 대한 제한된 군사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교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美國은 전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中共에 대한 제한된 軍事援助는 그것의 反蘇효용가치를 極大化시키는 반면, 美國 및 아시아의 美우방들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잠재적 可能性에 대해서도 그것을 極小化시키도록 신중히 선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점이다.

이러한 성격과 내용을 갖는 美·中共의 「군사적 유대」에 대해 蘇聯은 이미 다음과 같은 「위협」을 美國에 보여주고 있다.

첫째, 中共의 국방력 강화는 美·蘇간 데탕트(긴장완화)의 분위기를 해칠 것이며, 美國은 믿을 상대가 못된다는 일부 反美 蘇聯지도자들의 입장을 강화시켜 줄 것이다.

둘째, 西方의 무기가 中共에 도착되기 이전에 中共에 선제공격을 가하자는 일부 소련지도자들의 요청을 유발시킬 것이다.

셋째, 中共의 정치적 리더십이 만일 反美的인 中共지도자들에게 넘어가게 되는 경우, 中共에 제공된 西方의 무기는 美友邦들과 그리고 아시아에 있어서의 美國의 安保利益을 해치는 데 사용될 것이다.

넷째, 앞으로 어떤 위기가 일어날 때마다 도전적인 군사적 冒險을 감행토록 中共지도층을 고무시켜 군사적 충돌사건에 대한 中共의 개입가능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이상이 국제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던 Pillsbury의 美·中共군사유대론이다. 이 논문은 美國의 외교정책수립자들 사이에서도 貸反面論을 불러일으켰으나, 美·中共의 협조체제가 이룩되고 다시 그것이 美·日동맹 및 日·中共우호체제에 接木되어 美·中共·日의 3각협조체제로 발전해 나감에 있어서 하나의 이론적 寄与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第2節 새로운 3角提携 動態

美·中共·日의 3각협력체제를 향한 가장 중요한 움직임들은 78년에 있었다고 하겠다. 이 해 5월에 Carter 美大統領의 안보문제특별보좌관 Zbigniew F. Brzezinski 博士의 北京방문이 있었고 이것이 美·中共 외교관계 수립에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어 8월에는 日·中共간에 마침내 平和友好條約이 성립되었던 것이다.

우선 美國이 中共과 외교관계를 수립해 나가는 論理와 過程을 간단히 살펴기로 한다. Carter가 白宮館의 主人이 된 뒤 그의 對外政策은 Vance 國務長官과 Brzezinski 특별보좌관의 손에서 요리되어 나갔다. 그런데 Vance와 Brzezinski의 국제정세觀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니, Vance는 蘇聯과의 對峙에 보다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어서 蘇聯과의 對決을 회피하자는 입장임에 反해 Brzezinski는 對蘇強硬論의 지도자格이라고 하겠다.

Brzezinski가 폴란드移民出身으로 어려서부터 蘇聯에 대한 강한 혐오감속에 자라왔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가 쓴 책과 글 속에는 그것이 은연중에 깔려 있거니와, 특히 그의 「두시대 사이에서」가 그러하다. 여기서 그는 美國의 制度에 대한 憧憬감을 표시하면서 蘇聯體制는 결국 내려가고 있는 體制로서 보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의 밑바탕에는 그의 특유한 對蘇 혐오감이 깔려 있다.

이러한 背景의 Brzezinski가 對蘇강경론을 들고 나왔다는 것은 따라서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특히 美蘇간의 제1단계 전략

무기제한협정의 虚点를 이용하여 蘇聯이 육상미사일 뿐만 아니라 海底미사일에 있어서도 양적 우위에 서게 되었고, 多彈頭각개유도미사일(MIRV) 체제에 있어서도 美国에 육박해 버림으로써 美国의 보수세력이 크게 반발하던 상황 속에서 Brzezinski가 침묵을 지킬 수는 없었을 것이다.

77년 Carter大統領의 特別補佐官으로 발탁된 이후 그는 본격적인 對蘇견제정책을 펼치고 나갔다. 특히 蘇聯勢의 아프리카진출을 맹렬히 공격했으며 이를 美蘇대탕트의 문제와 別個의 問題로 보려는 蘇聯의 대탕트觀을 비난했던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78년 5월 中共으로 달려가 美·中共협조체제의 構築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北京에서 Brzezinski는 對蘇강경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자신의 北京방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스크바를 분명히 의식하면서 그는 北極곰의 위협을 대처해야 할 必要性을 역설하고 「강해진 中共」이 美国의 利益에 일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뒷날 밝혀진 것이지만 79년 1월 1일자의 美·中共 외교관계수립은 이때 그와 中共의 실력자 鄧小平부수상 사이에 합의 되었던 것이다.

中共의 새 權力層이 왜 Brzezinski가 내미는 손을 마주잡아 주었는지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中共의 새 權力層은 中共의 現代化, 즉 농업·공업·과학기술·국방 등 4개 분야에 있어서의 現代化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데 이의 실천을 위해서 서

방세계로부터 과학기술과 군사정보 및 자본의 지원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 위해 美國의 支援은 결정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여기에 79년 1월말에서 2월초 사이의 鄧小平의 訪美가 뒤따라 질 수 밖에 없었다. 우선 그의 능숙한 외교솜씨와 개인적인 매력을 활용하면서 台灣과 단교하고 北京을 승인한 데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美國내의 親台灣勢力을 무마해야 했으며, 또한 美國기업가들의 中共진출을 촉진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했던 것이다.

鄧의 訪美는 그런 각도에서 성공적인 것이었다. 확실히 그의 訪美를 계기로 美·中共수교에 대한 美國內의 支持度는 높아졌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잠시 美·日·中共 3각체제의 중요한 부분인 日·中共협조체제로 돌리기로 하자. 앞서 지적한 바 中共의 국내적 사정으로 中共은 日本의 對中共협력을 바라고 있다. 우선 日本의 재래식 군사력이 증강됨으로써 日本이 세계적인 對蘇戰線에서 주요한 한 부분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놀라운 변화이다. 日本의 군사력 증강을 항상 격렬히 비난하던 中共이 이제 日本 자위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군사력의 증강을 공공연히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日本방위력 증강에 반대해 온 日本의 좌파지지자들에게 「시대는 변화하고 있는데 그 변화에 그렇게 둔감해서야 되겠느냐」고 鄧이 오히려 비판하고 나섰다니 실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고 하겠다.

그다음 中共은 日本의 기술과 자본이 中共으로 흘러들어 오기를 원하고 있다. 아시아지역에 있어서 中共의 現代化계획에 실질적 도

움을 낼 수 있는 能力을 갖고 있는 나라는 日本이외에는 찾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日本으로서는 일단 영거주층한 상태에서 3각협력체제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日本은 대외관계에 있어서 거의 전적으로 美国의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추종해 왔다. 자신의 安保문제에 대해 거의 전적으로 美国에 의존하고 있는 日本으로서는 또 그 전적인 의존에서 거의 벗어나고 싶지 않은 日本으로서는 美国의 세계적 전략구상에 따른 3각협조체제에 반대할 형편이 못되는 것이다.

반드시 그 이유에서만이 아니다. 日本은 中共과의 협력에서 경제적 實利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즉 日本은 국내적 불황을 광대한 中共시장에서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第3節 協調体制存続의 可能性

美·中共·日本의 3각협조체제는 고전적 의미의 同盟体制은 아니다. 準동맹체제 또는 제휴체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3국사이에는 여러가지 면에서 이해가 일치하지 못하는 部分이 남아 있기 때문에 同盟으로까지 발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간단한 例로, 日本은 蘇聯을 의식해서 中共에 군사적 支援을 할 수 없는 입장인 것이다. 3국은 다만 蘇聯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견제하느냐는 공통분모 위에 서 있을 뿐인 것이다.

또 한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中·蘇간의 和解可能性이다. 蘇聯과 中共은 16년 내에 다시 화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 일반

적이다. 中共이 蘇聯의 선제공격을 버티어낼 수 있는 정도까지 軍事力이 늘어나게 될 때, 中共과 蘇聯은 양망뜨까지는 몰라도 데탕트관계까지는 갈 것이다. 中共이 현재 美·日과 협조하는 것은 蘇聯의 군사적 위협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必要 때문이다. 中共이 혼자서 蘇聯의 공격을 억제할 수 있을만큼만 커진다면 中共은 구태여 美國의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蘇聯도 선제공격으로 中共을 없앨 수 있는 상태가 아닌 다음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中共을 수용하는 것이 이익이지 내결을 지속하면서 불필요한 출혈을 하려하지 않을 것이다.

中共도 蘇聯만 원한다면 굳이 蘇聯과의 和解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對蘇對決 때문에 中共이 부담하고 있는 엄청난 희생을 지양하고 그 餘力을 近代化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中共의 實用主義는 이러한 對蘇和解도 포함 할 수 있을만큼 實用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註 3)

蘇聯은 3각협력체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中共의 西·南쪽에서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西南아시아의 아프카니스탄에 親蘇政權을 세울 수 있었고, 東南아시아의 새 強者 베트남과는 사실상의 군사동맹 관계를 체결했다. 또 그 親蘇 베트남은 캄보디아에서 親中共 폴·포트政權을 몰아내고 親베트남 괴뢰

註 3) 李相禹, 「美·中共 3角体制와 韓半島 安保」, 新東亞, 1979년 3월, PP.120 ~ 129.

정권을 세우는데 성공하여 머지 않아 베트남主導下의 인도차이나聯邦을 세울 입장에까지 나가 있는 것이다.

蘇聯이 이제 손을 옮겨 쓸 곳은 바로 東北亞로서 어느 곳보다 日本에 대해 강·온·양면에서 日本에 접근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3각협력체제에서 日本을 배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며, 여기서 蘇聯은 北韓에 눈을 돌릴 것이다. 즉 北韓에 北韓이 원하는 무기를 공급함으로써 제 2의 베트남化를 시도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무기공급은 실로 간단하다. 沿海州에 있는 소련군 장비를 하루 아침에 두만강을 건너 넘겨주면 된다.

소련은 또 北韓의 南侵때 美國의 介入을 막아주겠다는 것을 약속할 수 있다. 미국은 현재 당장에 韓國에 투입할 兵力을 갖고 있지 않다. 하와이 주둔군까지 모두 모아야 약 4개사단 정도도 되지 않는다. 소련의 海·空軍이 간섭하면 美國의 海·空軍도 자유로운 지원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美國은 설사 韓國을 발벗고 돕고 싶어도 그 능력에 한계가 있다. 옴키부르전쟁때 美國은 중력을 기울여 이스라엘에 장비를 공수했는데, 그 때의 최대치가 1일 1천 2백 t이었다. 노드캐롤라이나에서 텔아비브까지의 거리가 캘리포니아에서 서울까지의 거리와 비슷하므로 美國이 韓國에 최선을 다해 장비공수를 한다고 해도 1일 1천 2백 t 수준을 넘지 못할 것인데, 이 1천 2백 t의 장비라는 것은 전차로 치면 약 25대, 그리고 탄약이라면 1개사단의 1일 사용량 정도이다.(註 4)

註 4) Ibid., P. 126

만일 北韓이 蘇聯의 이러한 제의를 받아들여 제 2의 베트남이 되는 경우 中共이 받는 압박은 대단히 클 것이다. 그러나 北韓이 이 길을 밟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회의가 있다. 北韓은 무기와 더불어 상당한 수준의 기술 및 자본의 지원이 필요한데 그것을 소련에 기대기 보다는 미국에 기댈 때 얻는 이익이 크다고 계산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美·日·中共의 3각협력체제는 東北亞의 국제정치를 안정시킬 것이다. 그러나 열강간의 고도의 정치외교전은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며, 3각협력체제 그 자체가 安定性을 갖고 있는 체제가 아니므로 그 과정에서 변화할 可能性도 배제할 수 없다.

第3章 3角協調體制가

韓半島에 미치는 影響

前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美·日·中共의 3角협조체제는 그 자체가 安定性을 갖고 있는 體制가 아니므로 對蘇 견제목적의 準同盟체제로 발전해 나가는 過程에 있어서 關係 列強間에 고도의 政治外交戰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豫見되고 있다. 그리고 특히 그로인해 빚어질 周辺情勢의 變化는 필경 韓半島의 장래에 심각한 影響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本章에서는 이러한 視角에 입각, 美·日·中共의 3角提携國과 그에 맞서있는 蘇聯의 韓半島政策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그에 따라 南北韓은 각기 어떠한 立場에 놓이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들 살펴보고자 한다.

第1節 4強의 韓半島政策 展望

1. 美國의 韓半島政策

70년대의 國際政治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事變으로 꼽힐 美·中共 및 日·中共間의 關係正常化를 가져오게 한 契因은 말할것도 없이 極東지역에 있어서의 蘇聯의 軍事力승강이었다. 美國의 東「아시아」로부터의 힘의 減少政策이 뚜렷해지면서 蘇聯은 그 「힘의 空白」을 메우기 위해 이 지역에 대한 外交的접근과 더불어

이 지역에 있어서의 軍事力증강을 꾸준히 꾀해왔던 것이다.

이에 따라 極東에 있어서 蘇聯의 海·空軍力은 크게 늘어났으며, 또한 東南亞의 軍事大國으로 변모한 統一「베트남」과 軍事同盟을 맺기에 이르렀다. 東南亞 대부분의 나라들에도 파고들어 해마다 經濟協力과 文化交流를 증대시켜 가고 있다.

極東지역에 있어서의 이같은 蘇聯의 勢力팽창에 대한 효과적인 牽制는 美·日·中共이 모두 바라는 터였다. 美國은 蘇聯에 맞서기 위한 또는 蘇聯을 효과적으로 統制하기 위한 手段으로서 美·日·中共의 3角協調體制를 구축하기에 이르렀고 이를 바탕으로 서서히 3角準同盟體制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美國은 이러한 戰略的 構想에 따라 「우리는 이미 美·中共전쟁을 前提로한 戰力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中共은 蘇聯에 대한 對抗勢力이다」라는 公式見解까지 밝힌 바 있는 것이다.(註5)

그러면 이와같은 美國의 戰略的구상이 韓半島政策에는 어떻게 反映될 것인가. 우선 美國은 長期的인 判斷에 있어서 美·日·中共 3角협조체제의 발전으로 韓半島를 포함한 東「아시아」에는 友好와 協력이 증대될 것이며 따라서 이 지역의 安定과 平和가 점차 자리잡게 될것으로 보고 있는것 같다. 그러나 短期的으로는 蘇聯이 反蘇的인 3角「準同盟」의 포위망을 뚫기위해 外交·軍事 양면에서 강경하게 나올 것이며 이러한 움직임은 北韓과의 軍事的 유대를

註5) 美國防報告書, 1979年度.

강화하여 韓半島에서 새로운 戰爭위협을 야기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한 단기적 政策判斷의 대표적인 事例를 지난 7월에 있는 「카터」美國대통령의 駐韓美地上軍 추가철수 中止決定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이같은 決定을 내리게 된 背景으로서 北韓軍事力이 종전평가보다 강력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아울러 특히 최근 東「아시아」에서 蘇聯의 군사력증강이 꾸준히 이루어졌고 그로인해 東南亞에서는 새로운 衝突과 不安定이 야기되고 있는데 대한 美·日·中共의 공통적인 憂慮등이 크게 작용했음을 지적한바 있다.(註6)

그런데 이 發表文에서 주목할 점은 『韓國의 잠재적 經濟力과 美國의 支援을 감안하면 현재의 南北韓 軍事不均衡은 是正될 수 있다』는 前提아래 美地上軍의 추가철수를 「잠정중지」한다고 언급하고 있는 대목이다. 이는 韓國의 自主國防 노력에 의해 자체 地上방위력 이 北傀지상군과 맞먹는 수준으로 강화되면 美海·空軍과 兵站支援 등을 보탬으로써 軍事不均衡의 회복과 함께 韓半島의 緊張緩和를 위한 美國의 政治外交的 立場이 有利해지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美地上軍의 철수는 統開할수도 있다는 말로 풀이된다.

다시 말해서 撤軍의 「잠정중지」 조치는 短期的으로 볼때 韓半島의 戰爭위협을 바로 認識한 韓半島政策의 現實主義的인 調整이라 평가되지만 그러나 그에 담긴 意味를 長期的인 觀點에서 본다면 美·日

註6) 서울신문, 1979년 7월 21일자 「카터撤軍凍結 발표 全文」.

• 中共의 3角협조체제를 낳게한 美国의 对「아시아」政策에 있어서 主軸이 되어온 基本模型에는 별다른 큰 變化가 없는것이라 하겠다.

그 基本模型이란 「아시아」지역의 友邦국들에게 이른바 「綜合戰力구상」(Total Force Concept)을 適用한다는 것이다. 이는 1969년 「팜」宣言에 의해 밝혀진 脱「아시아」政策에 의거, 72年度 美国防報告書에서 제시된 軍事的 概念이다. 「아시아」에 있어서의 美軍事力 축소에 따른 「힘의 空白」을 同盟국의 人的·物的 資源의 最大動員으로 메꾸고자 하는 이 構想은 새로운 代替戰力の 造成에 刀點을 두고 防衛負擔의 當事국에의 部分的 轉嫁로 나타났던바 71년도부터의 韓國軍現代化計劃과 74년을 轉換點으로 하는 우리의 自主國防計劃 본격화는 이러한 軍事概念의 구체적 表現이라 하겠다.(註7)

蘇聯군사력의 팽창을 억제하기 위한 美·日·中共의 3角협조체제의 형성도 물론 이 軍事概念이 주요한 바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 体制가 軍事的인 提攜論까지 발전하기엔 中共에 대한 美·日の 支援에 아직 制約要素들이 많은 형편이다. 또한 日本의 再武装과 軍事力증강에는 지금으로서는 限界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美国이 日·中共 두나라를 부추겨주기 위해 자신의 軍事力을 이 지역에서 새로야 증강시킬 用意은 덜 되어있는 것이다.

註7) 金得柱, 「美·日の 对韓半島政策과 오늘의 問題意識」, 國際問題, 1976年2月号.

이러한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 美國은 韓國에 대한 軍事政策을 現實路綫으로 바꾸지 않을수 없게 된것이다. 즉 駐韓美地上軍의 철수를 늦추으로써 그 「시간적 여유」를 韓國의 自主國防力 강화와 아울러 日·中共에 대해서도 對蘇 견제력을 높이는데 充當하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같은 綜合戰力 구상이 美國의 立場에서 是 軍事的·外交的부담을 最小化하는 바람직한 方案으로 생각될수도 있겠다.

그러나 撤軍문제에 관한한 韓國이 바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南北不可侵協定の 체결등으로 韓半島의 平和定着이 制度化되고 韓國의 自主國防계획이 진척되어 韓國軍이 충분한 戰爭抑制力을 갖추게 될때까지 撤軍을 늦추어야 한다는 것이며, 美國이 생각하는 日·中共을 망라한 綜合戰力의 진척도가 撤軍의 要件으로 작용해선 결단코 안된다는 것이다. 韓美관계가 이러한 撤軍의 大原則을 굳게 지켜나가는 관계로 發展하려면 거기에는 양국간에 분명히 理解되어야 할 몇가지 問題點이 있다고 본다. 이에 관해서는 節을 바꾸어 뒤에 다시 詳說하기로 한다.

2. 日本의 韓半島政策

美·日·中共 3角협조체계의 형성을 계기로 日本의 자체 防衛概念과 그에 따른 韓半島政策이 또한 서서히 變化할 징후를 보임으로써 우리의 비상한 憂心을 끌고 있다.

우선 주목되는 防衛概念의 變化징후로서는 지난 3월 16일 「오하라」(大平) 日本首相이 參議院에서 『日本憲法上 自衛를 위해 核

武器를 保有할 수 있다』고 말한데 이어 18일에는 日本国防大学 졸업식에서 「日本은 他國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나 他國으로부터의 軍事威脅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戰爭抑止力은 계속 유지해야 할것」이라고 밝히고 「美國의 對日防衛公約은 日本방위에 第2次的인 의미밖에 없다」고 강조한 일련의 發言內容을 들수 있다.

戰後 日本의 자체 防衛개념은 戰爭포기를 규정한 憲法9조에 따라 최소한의 自衛力만을 保有한다는 이른바 「專守防衛」개념에 국한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70년대에 들어와서는 美·日의 對中共 關係改善노력과 그 反作用으로서의 日本에 대한 蘇聯의 위협, 그리고 駐韓美軍 철수계획을 비롯한 美國의 脫「아시아」政策 傾向등이 日本의 防衛概念에 어떤 형태로든 反映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日本의 防衛政策은 국민의 國防意志, 防衛力의 효과적 증강, 美日安保條約의 세가지 根幹에 입각하고 있다고 선언, 이에 따라 限定的 소규모 侵略事態에 유효하게 대응한다는 「基盤的 防衛力구상」에 의거한 「防衛計劃의 大綱」을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註8)

日本의 現兵力은 地上軍 15만5천, 海軍 4만2천, 空軍 4만5천이며 主要裝備는 탱크 8백대, 潛水艦 16척과 驅逐艦을 포함한 護衛船 60척, 作戰機 약 4백대등이다. 그러나 日本의 潜在的 力量으로 보아 脫「專守防衛」개념을 공식화하면 급속하게 軍事力을 증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核武裝化도 가능한 實情에

註8) 日本「防衛白書」, 1978年度.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日本 防衛概念의 變化와 軍事力의 증강방침은 國內의 支持, 美國의 「아시아」政策과 美·蘇·日·中共의 세력구조 變化, 「아시아」諸國의 反應과 韓半島 情勢등의 여러 要素와 같은 函數關係를 지니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美國이 蘇聯의 極東군사력 증강에 対処하는 日本의 役割증대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고 한편 中共이 또한 日本군사력의 증강을 前例없이 稱용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日本군사력의 증강은 必然的 추세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註9)

한편 이러한 日本 防衛概念의 變化는 최근 韓·美·日 3角安保 협력체를 모색하는 구체적인 움직임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즉 지난 7月下旬에 있는 「야마시다」(山下元利) 日本防衛庁長官의 訪韓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示唆하는 事件이라 하겠다. 그의 訪韓에 앞서 日本신문들이 지적했듯이 現職방위 관계 高位責任者의 韓國방문은 日本의 安全保障과 관련된 「마지막 터부」를 꺾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76년 「사카다」(坂田)장관때의 美日방위협력 小委員會설치, 78년 「가네마루」(金丸)장관때의 美日방위협력 指針 채택등 日本 防衛政策上의 禁忌가 차례차례 깨지면서 防衛庁장관의 訪韓만이 유일한 「터부」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韓日間의 防衛關係 交流만이 지금까지 留保되는데 대해 日本의 한 有力紙는 그러한 訪問이

註9) 서울신문, 1979年 3月2日 社說

日本을 極東의 緊張속에 끌어넣을 위험이 있다는 日本국민들의 警戒心, 그리고 韓·美·日 3角安保협력체제의 形成을 두려워하는 蘇聯이나 北傀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日本政府의 자세등이 큰 要因으로 작용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註 10)

이같은 지적대로 그의 첫 訪韓이 갖는 意義는 우선 日本국내의 安保意識이 상당히 적극화되었음을 立証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고 「야마시다」장관의 訪韓이 곧 韓日양국간에 어떤 구체적인 軍事的 협력관계를 맺으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다만 양국 國防首腦간의 儀禮的인 交驪에 그쳤을 따름이다. 그러나 곧이어 「야마시다」장관은 美國防長官을 만나기 위해 訪美할 日程을 앞두고 있으며 이같은 사실을 감안할때 韓·美·日 3국간의 安保協力이 어떤 형태로든 점진적으로 트일 수 있는 契機를 마련한것이 그의 訪韓의 또하나의 意義였다고 평가함에 인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결국 앞으로 日本이 추구할 韓半島政策은 크게 보아 美國의 東「아시아」安保政策의 테두리안에서 전개될 것이다. 그러나 政治, 經濟·文化등 分野에 있어서의 南北韓 「等距離外交」는 日·中共 관계개선을 계기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그리고 구체적인 韓·日 「軍事協力문제」에 있어서는 韓國이 이를 어떻게 받아 들이느냐가 關鍵일 것이다. 우리는 이같은 韓·日관계의 展望

註 10) 朝日新聞, 1979年7月22日字 社説

에 신중히 対応해 나가야할 새로운 轉機를 맞고 있는 것이다.

3. 中共의 韓半島政策

美·中共관계의 正常化와 새로이 형성된 美·日·中共의 3角형 조체제가 장차 中共의 韓半島政策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에 관해서는 肯定과 否定의 양면에 걸쳐 分析해 볼수가 있겠다.(註 11)

우선 肯定的인 분석은 中共의 韓國에 대한 태도가 훨씬 누구러 지지 않겠느냐는 見解이다. 中共이 美·日과 손을 잡은 이상 가령 「韓國休戰當事者會談」案등에 대해서도 보다 부드럽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台灣의 존재를 默示的 이긴 하나 事實上으로 인정하게 된 이상 韓國의 존재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方向으로 돌아서리라는 期待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否定的인 분석으로서는 蘇聯이 美·日·中共의 굳어지는 유대를 깨뜨리기 위해 北韓을 적극적으로 支援하는 길을 택하는 경우, 蘇·北韓의 군사협력은 강화될 것이며 그것은 韓半島와 東北亞의 새로운 緊張要因이 되리라는 견해를 들 수 있다.

英國의 國際戰略問題研究所 부소장을 지낸 세계적인 軍事문제 전문가 케네드·헌트장군의 所見이 위의 분석에 대한 적절한 答이 된다고 보겠다.(註 12) 그는 지난 77년 中共정부초청으로 中共을 방문한 바 있으며 금년들어서도 美·中共修交가 發効된 직후에 약

註 11) 서울신문, 1978年 12月 18日 社說

12) 東亞日報, 1979年 1月 19日 所載「中共이 보는 韓半島」.

2주일동안 中共을 방문, 北京지도자들과 美·中共수교이후의 「아시아」情勢에 관해서 폭넓은 意見을 나눈바 있다. 그런데 그가 中共 방문에서 알아낸 「中共이 보는 韓半島」는 대략 다음과 같이 간주려 진다.

첫째, 韓半島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中共은 여전히 北韓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즉 美国이 北韓과 對話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中共은 그 이유로서 美国은 韓半島에 관계가 있고 駐韓美軍의 철수 계획을 갖고 있으며 駐韓美軍의 존재가 韓半島문제 해결의 障礙가 된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韓半島문제에 있어서 中共은 아무런 關係가 없다는 주장이라 한다. 이같은 생각은 韓國을 제쳐놓고 美国과의 對話만을 바라고 있는 北韓의 주장을 그대로 代辯하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駐韓美軍이 철수해야 한다는 것은 中共의 공식적 입장이며 실제적인 非公式的 立場은 美軍이 존재하는 현재의 韓半島 상태를 불만족스럽지는 생각하지 않는 것임을 確信하기에 이르렀다고 將軍은 말한다. 그 이유로서 中共은 韓半島의 不安상태를 원치 않으며 더욱 美国과 北韓의 충돌도 피하고 싶어하고 있음이 확실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美国과 北韓의 충돌은 美·日등 西方의 支援에 의해 현재 中共이 추진하고 있는 4大近代化事業을 좌절시키는 것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 韓半島뿐만 아니라 太平洋지역에 있어서의 美軍의 존재는 中共의 對蘇政策에 利益이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韓半島의 現狀維持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세째로 장군은 美·中共의 国交正常化이후에도 韓半島문제에 관한 見解差로 인해 실제적인 美·中共간의 協力速度는 늦어질것으로 보고 있다. 中共이 현단계에서 韓半島문제와 관련해 어떤 역할을 하는 것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中共의 協調로 韓半島에서 緊張緩和의 분위기를 조성, 關係正常化의 利得을 얻어 내려는 美国의 对中共政策과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것이라는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요컨대 「헌트」장군의 이상과 같은 見解를 종합해볼때 우리가 당초 기대했던 韓國의 존재를 인정하는 中共의 韓半島政策 變化란 아직 바람 단계가 못되며, 한편 中共이 美·北韓의 對話를 공식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자신은 韓半島문제 해결에 아무런 役割도 맡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美軍의 韓國주둔에 굳이 反對하지 않고 있는 前後 二律背反的인 태도로 미루어 韓半島문제의 平和的해결을 위한 美·中共의 협력도 아직은 빠른 時日안에 期待할 수 없는 문제라 하겠다.

이렇듯 아직껏 아무런 變化의 기마도 公式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는 中共의 韓半島政策은 美·中共의 협력과 상극관계에 있는 蘇聯의 反作用을 意識하고 있는 탓이라 하겠다. 長期的으로 볼때, 中共은 韓半島의 安定에 대해 美·日이 충공에 걸고 있는 기대를 끝내 저버리고 있을 수 만은 없으리란 전망도 있다. 하지만 韓半島에 短期的으로 미칠 影響은 蘇聯을 자극함으로써 韓半島에 새로운 위험을 야기시킬 可能性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4. 蘇聯의 韓半島政策

美·日·中共 3角협조체계의 형성을 구상함에 있어 당초에 美國은 자신이 外交적으로 대단히 편한 입장에 서게 될것으로 생각했다. 거꾸로 中蘇는, 특히 蘇聯이 東「아시아」에 있어서의 主權 경쟁으로 커다란 外交的 부담을지게 될 것으로 豫見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小乘的인 자세로서 막상 美·日·中共 3각협조체계가 형성된 이후에 계속 벌어지고 있는 蘇聯의 反應으로 인한 일련의 事態는 美國의 國家利益에 도움이 못될뿐만 아니라 東「아시아」의 여러 友邦들에게도 새로운 威脅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위험요소를 대략 다음 세가지로 간주려 볼수 있다.(註 13)

첫째, 蘇聯의 軍事的 進出이 현저해졌다는 점이다. 美·英이 장악해온 「페르시아」灣으로부터 印度洋을 거쳐 南支那海에 이르는 航路에 이제 蘇聯함대가 버젓이 힘을 誇示하며 항해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베트남」과 軍事同盟을 맺고 그곳에 海軍基地를 두어 東南亞의 海路에 압박감을 주고 있으며, 東北亞의 海·空軍力도 크게 증강시켜 종국적으로는 美太平洋艦隊의 東北亞作戰路를 차단하려 하고 있다. 이 추세가 억제되지 않는다면 東北亞와 東南亞는 결국 蘇聯의 軍事的 위협앞에 놓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東北亞의 安定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中·蘇경쟁이 이 지역에 확대되면서 이 지역 國家들은 모두 「타나트·코만」前

註 13) 서울신문, 1979年 3月 17日 社說

泰国外相의 표현을 보면, 『호랑이를(中共)를 피해 악어(蘇聯)와 함께 살아야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반대냐』의 질실한 苦惱에 빠져 버린 것이다.

세째, 「베트남」·「캄보디아」紛爭을 中蘇의 代理戰爭이라고 규정 한 「브레진스키」 美安保담당 대통령특별보좌관의 표현과 같은 「代理戰」의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또한 「人民解放전쟁」의 고취, 게릴라戰의 지원, 弱小國에 있어서의 内部전복과 쿠데타의 조종 등 非正規的인 代理戰도 「아시아」 각국으로 擴散될 위험성이 커진 것이다.

이러한 樣相에서 韓半島가 例外일수는 결코 없다. 특히 蘇聯이 「베트남」을 조종하여 北京의 보호국 「캄보디아」를 일거에 무찌른것을 비롯, 「아프가니스탄」의 親蘇政權수립 그리고 「이란」의 사태라든지 「아프리카」에서의 蘇聯의 적극적인 진출등을 생각할때 美·日·中共의 협조체제를 「아시안 나토(NATO)」라고까지 酷評하고 있는 蘇聯으로서 北僞에 적극적인 회유책을 쓰지 않으리라는 保障은 없는 것이다.

한편 長期的인 視角에서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은 中·蘇간의 和解가능성이라고 보겠다.

中共이 현재 美·日과 협조하는 것은 새삼 말할것도 없이 蘇聯의 軍事的 위협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필요때문이다. 따라서 中共의 힘이 單獨으로 蘇聯의 공격을 억제할 수 있을만큼 커진다면 中共은 구태여 美·日의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을것이다.

또한 蘇聯도 先制攻擊으로 中共을 단숨에 무찌를수 없을바에야 어떤 형태로든지 中共과의 和解를 택하는 것이 利益이지 對決을 지속하면서 不必要한 出血을 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鄧小平의 「實用主義」는 이러한 對蘇和解의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뒀으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全般的으로 보아 「아시아」로 부터의 美國힘의 減少를 뜻하는 美·日·中共 3角협조체제의 등장은 각종의 새로운 紛爭과 그리고 중국엔 美蘇의 직접적인 對決까지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韓半島를 포함한 「아시아」지역 전체에 증대시키고 있다. 그 위험성을 줄이는 것은 그 위험성을 낳은 美國의 東「아시아」政策의 修正에 의해서만이 가능한 것이라 하겠다.

第2節 3角協調体制와 南北韓의 対応

1. 韓國의 입장

韓美관계가 지난 6月の 양국간 頂上會談을 계기로 새로운 友好·協力の 차원으로 들어섰고, 뒤이은 駐韓美地上軍 추가철수의 中止決定으로 美國의 對韓防衛公約이 확고함을 再確認케 된것은 반가운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長期的으로 볼때 美國의 변함없는 힘의 減少政策으로 인해 새로운 亂氣流가 교차할 80년대 東「아시아」의 國際情勢속에서도 韓美관계가 전통적인 友好의 바탕위에서 지속적으로 發展돼 나가려면 앞의 節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몇가지 양국간의 異見을 보다 一致되게 調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것이 韓國의 입장

이 아닌가 한다.

첫째, 80年代의 東「아시아」情勢를 바라보는 눈이다.

우선 美国은 美·日·中共 3각협력체제의 발전이 80년대에 가서는 東「아시아」의 安定과 平和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리라고 安易하게 보고 있는것 같다. 또한 3각협력체제에 대한 蘇聯의 예상되는 반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것 같다.

그러나 韓國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對決의 論理」가 80년대의 東「아시아」情勢를 지배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蘇聯이 反蘇的인 3각「準同盟」의 包圍網을 뚫기위해 外交와 軍事 양면에서 강경하게 나오리라는 假定에 바탕한 견해이다. 특히 蘇聯이 北韓과의 軍事的 유대를 강화하여 北傀를 제2의 越盟化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東「아시아」地域國家들간의 戰爭을 보는 눈이다. 美国은 기본적으로 東「아시아」국가간의 戰爭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점이 韓國을 비롯한 美国의 東「아시아」友邦들의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한 美国의 見解는 최근 政策立案者들간에 자주 拳論되고 있는 이른바 機動軍(mobile force)에 의한 「遠隔抑止」(Remote deterence) 전략구상을 통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

이 遠隔抑止 전략개념은 궁극적으로 海外주둔 美軍의 完全撤収의 길을 틔으로써 장차 美国은 友邦國의 被侵事態에 선택적으로 介入할 수 있는 여유를 갖고자 하는 政策構想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疑懼

心을 東「아시아」 友邦國들에게 안겨주는 것이다. 특히 오는 81년
에 이르러 再檢討될 駐韓美地上軍의 추가철수문제가 萬의 一이라도
그같은 政策構想과 관련지어 學論된다면 그것은 건전한 의미의 韓
美 友好協力관계를 해치는 兇事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세째, 北韓을 바라보는 눈이 또한 問題視된다. 美國에서 현재
北韓문제를 다루는 人士들 가운데는 美國의 對中共 接近政策의 理
論的 근거와 모델을 北韓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이가 없지
않다. 北韓을 國際社會에 끌어내어 그 나름의 「책임있는 역할」을
하게 하고 또한 經濟支援등을 제공함으로써 「脫蘇」시키는 것이
美國의 對北韓政策으로써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들은 나아가 北韓을 「제 2의 中共化」하기 위해서 北韓이 요구하
는 駐韓美軍의 완전철수에도 어느정도 호응해 주어야 한다고까지
보는 것이다.

이들에게 南北對話는 撤軍을 合理化시키기 위한 名分으로 받아들
여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發想은 北韓에 대한 純眞性
과 無知를 드러내는것 이외에 아무 뜻도 없는 것이라 하겠다.
北韓은 「南朝鮮革命」의 노선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포기
할수도 없는 존재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北韓의 최근 動向으로
보아 「脫蘇」보다는 오히려 蘇聯과의 軍事紐帶를 강화해 나갈 가
능성도 없지 않은 것이다.

80년대 東「아시아」情勢 전반과 그리고 北韓에 대한 정확한
認識, 이것이 韓·美간에 一致되어야 한다. 우리 政府는 보다 강력

한 對美外交의 전개를 통해 이같은 몇가지懸案을 원만히 풀어 나가야 하리라 믿는다. 그 바탕위에서만 韓·美양국은 不確実한 변모를 초래할 80년대의 韓半島 주변 모든 与件에 자신있게 対応하는 가운데 友好·協力 관계를 계속 차원높이 발전시켜 나갈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2. 北韓의 입장

本稿에서 가장 핵심적인 關心事가 되는 것은 새로이 改編된 韓半島 주변의 強大国 관계가 南北韓 문제의 平和的 해결을 거부하고 있는 北韓의 태도를 과연 變化시킬 수 있을 것인가의 与否라고 하겠다.

특히 그 열쇠를 쥐고 있다고 보아야 할 中共은 장차 美·日·中共의 협력 관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北韓의 武力路線을 얼마만큼 누그러뜨릴수 있을 것인가가 주목의 集点이 된다.

그러나 中共과 가장 가까운 사이인 北韓의 입장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것은 아직도 未知의 장막속에 쌓여 있다. 다만 北韓이 이제까지 公式的으로 나타낸 反應으로서는 지난해 12月15日 美·中共의 修交 발표가 있는 직후인 12月23日 「로동신문」 기사로 다음과 같이 報道한 사실이 있다.

즉 이 기사에서 北韓은 美·中共 共同 커뮤니케의 「霸權反對」 조항을 我田引水格으로 새겨 「美國이 패권추구를 멈췄다고 약속했으니 이를 韓半島에도 적용, 駐韓美軍을 완전히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中共이 지난해 8月12日 日本과 友好條約을 맺고 이어 10月 鄧小平副首相이 日本을 방문했

을때는 아무런 報道도 論評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을 통해 北韓은 기본적으로 美·中共, 日·中共의 修交가 자신에게 못마땅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를 既定事實로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이 형성된 國際的 与件을 赤化統一전략에 逆利用하려 꾀하고 있는 속셈을 우선 알아낼 수가 있다. 北韓이 이같은 소극적인 反應을 보인 것은 中共의 實用主義에로의 급격한 變化를 상징하는 對美 및 對日관계 정상화를 受容하기엔 자신의 權力 및 政策構造가 완고한 教條主義로 너무나 硬直化되어 있기 때문인 탓이라 하겠다.

그렇다고는 해도 3角협조체제가 우리의 安保狀況과의 關係하에서 北韓에 미칠 影響은 肯定的 측면과 否定的 측면의 두 각도에서 想定해 볼 수가 있다. 먼저 긍정적 측면에서 본다면 첫째, 3角협조체제는 韓半島에 있어 戰爭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세 나라 모두 韓半島에 있어서의 戰爭再發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지난 1月 鄧小平의 訪美를 맞은 「카터」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도 분명해진바 있다.

그는 美國과 中共이 각각 南北韓에 전쟁 재발의 방지를 위해 影響力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에 대해 鄧은 겉으로는 消極的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鄧의 訪美이후 中共이 비록 制限된 범위의 것이기는 하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듯 보여 진다.

둘째, 北韓이 美·日·中共의 전쟁포기 중용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北韓의 經濟가 과도한 戰爭準備로 말미암아 극도로 沈滯되어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이같은 경제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들은 西方世界, 특히 美國과 日本으로부터 資本과 技術을 도입하려는데 決心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北隗는 일단 武力에 의한 淸南赤化노선을 確保할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肯定的인 측면 이외에 다음과 같은 否定的인 측면을 아울러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蘇聯이 3角협조체제에 대해 강경한 대응의 길을 선택하는 경우, 蘇聯은 北韓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武力支援을 하게 될 것이다.

蘇聯은 3각협조체제의 突破口를 찾기 위해 中共의 西-南쪽에서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제 蘇聯이 손을 옮겨 쓸 곳은 바로 東北方面으로서 어느곳보다 日本에 대해 強·穩 양면에서 접근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3각체제에서 日本을 빼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蘇聯은 北韓에 눈을 돌릴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즉 北韓에 그들이 원하는 武器를 공급함으로써 「제2의 베트남」化를 시도하려라는 것이다.

그러나 北韓이 이 길을 밟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速斷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蘇聯의 지원만으로 淸南赤化가 꼭 성공하리란 보장도 없는데다 北韓은 武器와 더불어 상당한 수준의 技術

및 資本이 필요한데 그것을 蘇聯에 全的으로 기대기 보다는 西方
測에도 기대어보는게 利益이 더 크다고 계산할 가능성도 있기 때
문이다.

둘째, 3角협조체제로의 변화과정을 北韓이 자신에 有利하게 이해
하고 있다면 武力挑發의 의욕을 증대시킬 것이다. 3각협조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美國은 台灣과 斷交했다. 台灣과의 相互防衛조
약도 폐기해 버렸고 台灣에 주둔해 있던 美軍도 모두 철수시켰다.
그렇다고 해서 中共으로부터 台灣을 武力으로 侵攻하지 않겠다는
文書上的 약속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이는 다만 서로의 讓解事況
으로 지켜지고 있을 뿐인 것이다.

이 일련의 事態進展을 北韓은 어떻게 읽었을 것인가. 北韓은
이것을 社會主義 국가의 勝利를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 78년
의 日·中共평화우호조약에 대해서는 서너달동안이나 침묵을 지켜온
그들의 新聞, 放送들이 美·中共수교에 대해 즉각적인 反應을 보인
데에는 바로 그러한 뜻도 있었다고도 생각될 수 있다.

北韓은 美國의 台灣포기방식이 韓國에도 적용될 것으로 간주할,
그것이 「歷史의 大勢」인 것으로 誤算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
이다. 만일 그렇게 믿고 있다면 北韓은 계속적인 軍備증강을 통
해, 그리고 南北對話를 戰術的 방편으로 이용해 長期的이면서도 本
格的인 對南革命노선을 밀고 나가는 길을 선택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美·日·中共의 3角협조체제는 東北亞의 國際政
治를 安定시킬 公算이 크다고 하겠으나 이를 받아들이는 蘇聯과

北韓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는 상당한 危險性도 따르고 있다. 특히 3角협조체제는 그 자체가 安定性을 갖고 있지 못한 체제이므로 그 발전과정에서 變化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를테면 앞서 지적했듯이 中·蘇의 和解같은 것이 그 한 變化가능 變因이다.

그러나 北韓이 어떤 外交路綫을 선택할 것인지는 이같은 斷片的인 事例에 의한 断定보다는 그들의 内部事情을 포함한 複合的인 變因들을 總體的으로 分析, 綜合해봄으로써 보다 뚜렷이 드러날 것이다.

第4章 北韓이 選擇할 外交路線의 몇가지 模型

美·日·中共의 3角協調體制에서 北韓이 選擇할 外交路線은 反中共·親蘇, 親中共·反蘇, 對中·蘇關係에서의 嚴正中立을 認定할 수 있으며 北韓의 安保, 統一政策, 經濟·國際外交 등에 걸친 利害關係의 綜合的 評價에 따라 以上の 세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로 기울어지게 될 것이다.

第一節 北韓 外交路線의 選擇要因

1. 統一政策

北韓은 이때까지 그랬거니와 앞으로도 그들의 統一政策과 戰略을 具現하는데 어떠한 外交政策을 實施하는 것이 보다 有効할 것인가의 評價가 外交路線을 選擇하는데 하나의 要因이 될 것이며 立場은 美·日·中共의 3角體制下에서의 外交路線에도 反映될 것이다.

問題는 外交路線의 選擇에 있어서 統一政策과 戰略의 比重을 그밖의 다른 要因과의 關係에서 어느만큼 무겁게 들것이나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統一政策의 比重을 北韓의 安保, 經濟發展등의 要因에 比하여 最優位에 두었던 것으로 보여진다.¹⁴⁾ 北韓 勞動黨 創黨 30周年에 즈음한 金日成 演說에서는 統一이 모든 政策의 優先的 課題라고 強調하였다.

註 14) 「근로자」, (北韓勞動黨 理論誌), 1975年 10月, 20号, 勞動黨 創黨 30周年에 즈음한 金日成演說.

그러나 今後 北韓은 그들의 主導에 의한 統一의 가능성이 희박해 지고 反面 經濟的 困難 또는 對內的 政治的 危機要因으로 北韓의 共產主義體制 乃至 現存 權力的 脆弱性 除去가 北韓의 優先的 課題로 제기될 경우에는 外交路線의 選擇에 있어서 이러한 事情이 反映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그에 따라 統一政策과 戰略은 外交路線의 決定에 있어서 優先的 地位를 잃게 될 것이다.

2. 經濟發展

北韓의 外交路線 選擇에 있어서 그 輕重이야 어떻든 經濟發展의 要請이 하나의 要因으로 되어온 事實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北韓黨局은 中·蘇를 비롯한 社會主義國家들과의 經濟協力을 對外 經濟政策에 있어서 優先시켜야 한다고 강조해 (왔는바 15) 이는 外交路線의 選擇에 있어서 어떤 나라와 經濟協力을 하는 것이 北韓의 外交와 經濟發展에 보다 바람직 할 것인가 하는 것을 考慮하고 있음을 示唆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한편 現實적으로 北韓의 經濟는 蘇聯으로부터 援助에 크게 依存하고 있어 이로 말미암아 對蘇關係가 어떤 政治的인 問題로 疎遠化 乃至 惡化될 原因이 있을 경우에도 對蘇友好關係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되는 事情인 것이다.

北韓이 經濟發展을 外交路線으로 選擇하는데 있어서 어느만큼 比重을

註 15) 「근로자」, 1971年9月5日, 北韓의 「對外貿易」題下の 論說.

둘 것이냐 하는 것은 統一政策 및 戰略과 函數關係를 갖는다고 하겠다. 즉 政治外的 手段에 置重한 統一政策 및 戰略의 具現에 外交政策을 優先시킬 경우에는 外交路線의 새로운 選擇에 있어서 經濟發展을 위한 外交政策은 相對的으로 낮게 評價될 것이고, 반대로 統一政策 및 戰略이 外交政策에 있어서 第2次的인 것으로 後退되면 經濟發展의 要請이 外交路線의 選擇에 있어서 上位로 浮上될 것이라는 것이다.

3. 安保問題

北韓의 安保問題도 그들의 外交路線의 選擇에 있어서 하나의 要因으로 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1965年 2月 「코시킨」蘇聯首相의 平壤訪問을 契機로, 北韓이 親中·反蘇로부터 親蘇·反中共으로 전환한 것은 北韓의 對蘇 軍事關係의 脆弱化가 北韓의 安保에 위협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1964年 7月 6日 蘇·北僞의 軍事同盟條約 3周年에 즈음하여 蘇聯當局은, 同 同盟條約은 어디까지나 防衛的인 것이며, 條約의 條文에 관해서 이러 저러하게 一方的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北韓에 대해서 경고했을 정도로 北韓과 蘇聯의 關係는 악화되고 있었는데¹⁶⁾ 1964年 8월 「통킹」灣사건으로 越南戰爭이 급격히 확대해 나가자 北韓은 越南戰爭이 韓半島에까지 飛火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

註 16) 모스크바放送 (1964.7.6), 蘇·北韓相互援助·協力條約 (軍盟) 3周年에 즈음한 論評.

고 17) 自身の 安保的 必要에 의해서 좋은 싫든 蘇聯과의 軍事協力 關係의 正常化를 위해 對蘇關係의 改善을 서두르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한편 北韓이 外交路線을 線 挾하는데 있어서 安保的 要請이 어느 만큼 比重을 占하느냐는 다른 要因 즉 統一政策 및 經濟政策 등과의 相関 關係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다.

(4. 第3世界 外交)

北韓은 1960年代 이래 第3世界 外交를 重要視해 왔고 70年代에는 對中·蘇外交보다도 오히려 높은 比重을 두고 있는 印象을 주고 있다. 北韓은 中·蘇紛爭 및 蘇聯의 對美네탕트, 또한 中共의 對美 關係改善으로 中·蘇가 다같이 그들의 統一政策에 강력한 支援 能力으로서의 地位가 약화되자 相對적으로 第3世界 外交의 比重을 높이고, 第3世界 諸國을 北韓 統一政策의 國際的 協調努力으로 확보하고자 꾀했다.

北韓의 이같은 第3世界 外交의 重視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外交政策路線의 選擇에 있어서는 그것이 第3世界 外交에 미치는 影響을 참작하게 될 것이다.

註 17) 「근로자」(1966.10.20), 勞動黨代表者會議, 「現情勢와 우리黨의 當面課業」題下의 金日成演說.

第2節 北韓이 選擇할 수 있는 外交路線 模型

1. 反中共·親蘇路線

美·日·中共의 3角協調體制下에서 北韓이 反中共·親蘇로 될 要素는 다음과 같다고 하겠다.

첫째 美·日·中共의 3角協調體制는 北韓의 統一政策 및 戰略에 있어서 關鍵으로 되고 있는 反美鬭爭에 중대한 沮害要素로 되며, 따라서 北韓이 統一政策 및 戰略을 外交路線에서 最優先的인 課題로 하고 있을 경우에는 美·日·中共의 協調體制와 相剋關係에 있는 蘇聯에 偏向하고, 反面 中共과의 關係는 疎遠 乃至 惡化될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 經濟政策에 있어서는 北韓의 對西方 經濟·技術協力이 封鎖되고 있거나 狹隘한 條件에서는 北韓은 支援을 크게 期待할 수 없는 中共보다는 支援을 보다 크게 期待할 수 있는 蘇聯과 親密해 질 것이고 이의 反作用으로 中共과의 關係는 疎遠化 乃至 惡化될 것이다.

한편 北韓을 에워싼 中·蘇의 影響力 競爭은 앞으로도 치열하게 展開될 것인만큼 蘇聯은 自身の 援助에 대한 北韓經濟의 커다란 依存度를 이용하여 北韓의 對中共偏向을 견제하며 나아가서 北韓을 親蘇·反中共으로 나가게끔 不斷히 壓力을 加하게 될 것이다.

특히 蘇聯은 3角包圍網을 뚫기위해 北韓에 대한 대규모 援조를 제공, 南侵을 감행토록 便啖함으로써 제2의 베트남化를 시도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많다. 물론 그같은 想定은 있을 수 있겠

第 2 節 北韓이 選拔할 수 있는 外交路線 模型

1. 反中共·親蘇路線

美·日·中共의 3角協調体制下에서 北韓이 反中共·親蘇로 될 要素는 다음과 같다고 하겠다.

첫째 美·日·中共의 3角協調体制는 北韓의 統一政策 및 戰略에 있어서 關鍵으로 되고 있는 反美鬭爭에 중대한 阻害要素로 되며, 따라서 北韓이 統一政策 및 戰略을 外交路線에서 最優先的인 課題로 하고 있을 경우에는 美·日·中共의 協調体制와 相剋關係에 있는 蘇聯에 偏向하고, 反面 中共과의 關係는 疎遠 乃至 惡化될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 經濟政策에 있어서는 北韓의 對西方 經濟·技術協力이 封鎖되고 있거나 狹隘한 條件에서는 北韓은 支援을 크게 期待할 수 없는 中共보다는 支援을 보다 크게 期待할 수 있는 蘇聯과 親密해 질 것이고 이의 反作用으로 中共과의 關係는 疎遠化 乃至 惡化될 것이다.

한편 北韓을 에워싼 中·蘇의 影響力 競爭은 앞으로도 치열하게 展開될 것인만큼 蘇聯은 自身の 援助에 대한 北韓經濟의 커다란 依存度를 이용하여 北韓의 對中共偏向을 견제하며 나아가서 北韓을 親蘇·反中共으로 나가게끔 不斷히 壓力을 加하게 될 것이다.

특히 蘇聯은 3角包圍網을 풀기위해 北韓에 대한 대규모 援助를 제공, 南侵을 감행토록 便啜함으로써 제 2의 베트남化를 시도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많다. 물론 그같은 想定은 있을 수 있겠

으나 과연 北韓이 蘇聯의 이같은 戰略에 호응하거나 또는 말려들 것인가에는 회의적이라고 보는게 옳을듯하다. 왜냐하면 蘇聯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美國을 비롯한 西方側에 대한 중대한 挑戰으로 간주되어 對美태탕트라는 그들의 優先的 政策에 찬물을 끼얹는 結果를 招來할 수 있기 때문이다. 北韓측 입장으로 봐도 우선 中共의 보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특히 美國의 對韓방위지원 결의가 무너져버리지 않은 상황에선 「完勝」을 자신할 수도 없고 또 위험 부담이 막중한 全面戰爭을 蘇聯의 의도대로 꼭 일으켜야 하는지 의심스러운 것이다.

北韓이 反中共 親蘇로 기울러지기 어려운 要素는 다음과 같다고 하겠다.

첫째, 北韓의 安保에 中共의 協力이 絶對적으로 要請되고 있다는 点이다.

中共은 蘇聯에 비하여 北韓과 地理적으로 보다 隣接되고 있으며 北韓의 安全에 대한 利害關係의 評價에 있어서 中共은 蘇聯보다도 重大하게 보아왔다. 이것은 北韓과 中共의 軍事同盟關係가 北韓과 蘇聯의 軍事同盟關係보다도 相對적으로 鞏固하지 않을 수 없음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6.25 戰爭때 蘇聯은 北韓을 돕기 위한 地上軍 兵力을 파견하지 않은데 反해서 中共은 「抗美援朝保家衛國」이라는 표방아래 大軍을 派遣한 사실은 北韓의 安全에 대한 中·蘇聯의 評價의 差異가 反映되고 있다고 보겠다.

1970年代에 北韓이 對中·蘇關係에 어떤 쪽으로도 偏向을 삼가하고

大體로 中立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安保面에서는 對中共關係를 相對的으로 보다 重要視했다. 1979年 5月 鄧영초 (周恩來의 妻) 中共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 副委員長의 平壤訪問때 鄧과 金日成의 交換演說에서는¹⁸⁾ 서로 北韓과 中共사이의 共同防衛關係가 확고하며 앞으로 兩側의 「血盟關係」가 變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요컨대 北韓은 그들의 安保가 危機에 直面했을 경우에는 蘇聯보다 中共으로 부터의 救援을 크게 期待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같은 北韓 安保的 事情은 反中共·親蘇로 기울어지는 것을 어렵게 하는 하나의 要因으로 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1960年代 後半期에 北韓과 蘇聯의 關係가 改善된 것과 反比例해서 北韓과 中共의 關係는 惡化되었고 그 要因은 앞에서 說明한 바와 같이 北韓은 越南戰爭 擴大의 危機感으로 말미암아 취약화되었던 對蘇 軍事協力關係를 정상화하고자 한데 있었으며 이것은 當時 北韓이 中共과의 軍事協力關係보다도 蘇聯과의 그것을 더 重要視했음을 뜻한다. 그러나 70年代는 与件의 變化를 가져 왔다. 60年代의 越南戰爭 當時는 北韓이 韓國뿐만 아니라 美國軍을 상대로 戰爭을 할 경우 核武器의 保有가 아직 戰術的 단계에 지나지 않고 戰略的 단계에 이르지 못한 中共의 支援에 기대기는 不安하고, 美國과 거의 比等한 蘇聯의 強大한 軍事力의 支援이 아니면 안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나 70年代에는 中共의 軍事力이 蘇聯에 비해 아직

註 18) 平壤放送 (1979.5.27), 鄧영초의 歡迎宴에서의 金日成과 鄧의 演說.

도 한 次元이 낮다고 하더라도 美·中共의 關係改善이 進展되고 있는 与件 등으로 因하여, 北韓이 中共과의 共同防衛体制를 확보하고 있으면 北韓의 安保는 큰 問題가 없다고 評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北韓의 第3世界 外交에 中共의 支援이 要請되고 있는 点이다.

北韓은 50年代까지 对内外의 政治에서 对蘇一辺倒였으나, 中蘇紛争 및 「모스크바」가 國際共產主義運動의 單一中心이 될 수 없다는 東歐 諸國을 포함한 世界各國 共產黨의 主張에 따라 60年代이래 对蘇一辺倒를 脱避하면서 对 非同盟國 外交를 開始했으며, 75년에는 北韓이 非同盟그룹에 會員國으로 加入하기까지에 이르는 非同盟外交의 成果를 거두었는데 그 背後에는 中共의 積極적 支援과 協調가 있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는 일이다.

이러한 事情에 비추어 본다면 北韓이 지금과 같이 非同盟外交 즉 第3世界外交를 重要視하고 있는 限, 그의 第3世界外交에 큰 打擊으로 되지 않을 수 없는 反中共·親蘇에로의 偏向은 어려운 일이라고 하겠다. 問題는 北韓이 第3世界外交를 희생하지 않을 수 없는 反中共·親蘇에로의 偏向을 불가피하게 하는 다른 要因이 발생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中共은 「3개의 世界論을 第3世界外交의 政治的 및 思想的 背景으로 하고 있는데 北韓이 이에 同調하고 있어 第3世界外交에 대한 中共과 北韓의 協調細帶는 각별히 공고하며 따라서 이것은 北韓이 反中共·親蘇로 기울어지는것을 보다 어렵게 하는 制要素의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이다.

「3개의 세계論」은 美·蘇의 超強大國을 第1世界, 開發된 資本主義國家들 즉 日本, 西歐諸國 등을 第2世界, 低開發國家들을 第3世界로 각각 区分하고, 世界의 가장 主要한 矛盾을 第1世界의 勢力팽창 및 霸權主義와 그 對象으로 되고 있는 第3世界의 低抗이라고 主張하고 있으며, 第2世界는 第3世界의 反霸權鬭爭에 同調勢力으로 끌어 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美·蘇의 超強大國 가운데서도 蘇聯社會帝國主義의 霸權主義가 가장 위험함으로 蘇聯이 第3世界의 第一義的 鬭爭對象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中共의 「3개의 세계論」을 北韓이 支持하고 있는 것이 蘇聯을 자극시키고 있음은 물론이다. 어쨌든 北韓이 「3개의 세계論」을 支持하고 있는 것은 北韓과 中共간에 國際外交에 있어서 政治的 乃至 思想的 細帶가 그만큼 密着되고 있음을 뜻하며 今後 北韓의 外交路線을 豫測하는데 있어서 判斷의 主要한 기준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1. 親中共·反蘇路線

北韓이 親中共·反蘇의 外交路線을 扞할 수 있는 要素는 다음과 같다고 하겠다.

첫째 北韓이 對內外政策에 있어서 赤化統一을 위한 革命 第一主義를 後退시키고, 經濟·技術開發을 政策의 優先的 課題로 扞할 경우이다.

北韓은 蘇聯으로 부터 經濟·技術을 받아오고 있으나 北韓의 要求를 充足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77年 12月 北韓의 副主席 朴成哲

이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北韓의 새 7個年計劃(78~84年)에 所要되는 經濟·技術 및 資本援助를 蘇聯政府에게 要請했으나 具體的인 約束를 받지 못했으며 北韓이 蘇聯에 지고 있는 約 7億달러의 債務의 상환기한을 연기하는데 동의했을 뿐이며, 原子爐의 導入要請에 대해서는 잘라서 拒否했다고 알려졌다.

蘇聯이 이처럼 對北韓 援助에 인색한 것은 北韓이 對中·蘇關係에서 中立을 지키고 있고 思想的으로는 오히려 中立을 가까이 하고 있는데 대한 消極的 報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蘇聯은 北韓이 親蘇·反中共이라고 하는 政治的 代價없이는 北韓이 만족할 만큼 援助를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는 것이다. 한편 蘇聯은 지금 北韓의 16개의 大單位 工場에 技術援助를 제공하고 있으며 雄基精密工場에 年間 約 100 萬톤의 精油를 供給하고 있는데 이같은 援助를 親中共으로 기울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壓力手段으로 이용하고 있다. 北韓이 中共偏向으로 나갈 徵候를 보일 때마다 蘇聯은 對北韓 援助를 想起시켰으며, 最近에는 「베트남」의 「캄보디아」 侵攻에 대해서 北韓이 中共과 함께 親蘇的 「베트남」의 侵略을 맹렬히 비난한데 대한 報復으로 蘇聯의 北韓에 대한 原油供給을 大幅으로 減少시켰다고 전해지고 있다.

蘇聯은 60年代 이래 對北韓 經濟援助를 北韓이 對中共偏向으로 나가지 못하게끔 하는 壓力手段으로 使用해 왔다는 사실은 北韓當局에 의해서도 폭로된바 있다. 1963年 10月 28日字 北韓 勞動黨 機關紙 「勞動新聞」 社說에서는 「후르시초프」 蘇聯政府는

北韓에 대한 援助를 미끼로 北韓의 內政을 干涉했으며 北韓에 親蘇, 修正主義政權을 實現시키려 企했다고 비난 했었다.¹⁹⁾ 또한 1964年 9月8日字 「勞動新聞」 論說에서는, 蘇聯은 平壤紡織工場과 興南肥料 工場에 대한 援助를 크게 자랑하고 있으나 蘇聯은 北韓으로부터 約 510 톤의 金塊와 여러 貴重한 資源을 헐값으로 가져가고, 蘇聯의 工業製品을 國際價格보다 훨씬 높은 價格으로 北韓에 팔았다고 비난 했다.²⁰⁾

이와 같이 北韓이 親蘇·反中共의 政治的 代價를 支援하지 않는 한 蘇聯으로부터 만족할만한 經濟·技術 및 資本援助를 받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形편이다.

그렇다면 北韓은 經濟發展을 추진하기 위한 國際的 支援 및 經濟·技術協力에 새로운 代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北韓의 現行 7 個年 經濟計劃은 40 億달러 이상의 外資導入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推定되고 있다. 그리고 現行 7 個年計劃의 목표 設定에 있어서 75%의 勞動生産性 向上을 計劃하고 있다. 北韓經濟에 있어서 勞動生産性 向上은 勞動時間의 延長과 勞動強度가 이미 限界에 이르고 있는만큼 現代的 産業設備의 導入에 거의 의존해야 할 形편이다.

註 19) 勞動新聞, 1963年 10月 28日字 社說 「社會主義陣營을 옹호 하자」.

註 20) 勞動新聞, 1964年 9月 8日字 論說 「프라우라는 어째서 平壤 討論會를 헐뜯으려 하는가」.

北韓이 國際的 經濟·技術協力を 폭넓게 受容할 태세를 갖추게 된다면 蘇聯이 그 需要를 充足시켜주지 못할 條件에서는 어쩔 수 없이 美·日을 비롯한 西方諸國에 經濟·技術協力の 門戶를 開放해야 할 것이다. 北韓이 이와같이 政策을 轉換하게 될 경우에는 反蘇的 性格을 가지고 있는 美·日·中共의 協調體制에 適應할 可能性이 있고 이러한 結果는 北韓이 親中共·反蘇의 길로 나가게 할 것이다.

둘째, 北韓 安保의 背景으로서 中共의 軍事力이 蘇聯의 軍事力과 거의 對等하게 強化될 경우이다.

앞에서 言及한바와 같이 北韓은 自身の 安保에 美國으로부터 威脅을 느낄 경우에는 美國과 匹敵할 軍事力을 갖고 있는 蘇聯에 偏向하고 相對的으로 中共과의 關係는 疎遠해 진 것이 歷史的 經驗이다. 따라서 앞으로 北韓의 安保에 대한 國際的 威脅을 對中共 同盟關係만으로도 能히 對處할 수 있다고 보게 된다면 北韓의 對蘇 偏向으로 나갈 要因의 하나는 除去되는 셈이 되는 것이다.

北韓의 金日成집단은 蘇聯이 미그 23機를 비롯한 新銳武器를 中東의 親蘇國家들과 印度등에는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北韓에는 주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不滿을 表示했다 하거니와 60年代 이래 北韓과 蘇聯간에는 이른바 國防論爭을 해 왔다. 즉 北韓은 그의 独自の 防衛體制를 가져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는데 대해서 蘇聯政府는 蘇聯의 강력한 軍事力으로 北韓의 安保問題는 카바할 수 있다고 主張하고 北韓의 지나친 對蘇軍事援助 要求를 制止해

은 것이다. 1966年10月 北韓 勞動黨代表者會議에서 金日成이 「國防에 있어서의 自衛原則」을 제창한 것은 上記와 같은 北韓·蘇聯 간의 國防論爭이 背景으로 된 것이다.²¹⁾

세째, 北韓의 權力構造에 있어서 傳統的으로 親中共派가 優勢를 피해 왔다는 事實도 北韓이 앞으로 親中共·反蘇로 기울어질 要素 가운데 하나로 손꼽을 수 있을 것이다.

金日成을 비롯한 北韓 最高指導層의 대부분은 中國共產黨籍을 갖고 1940年代 初半까지 中共軍의 對日戰에 協調했으며 그들의 思想的 바탕도 毛澤東主義의 影響을 크게 받아 왔다. 더우기 8.15後 金日成의 強力한 政敵으로 登場했던 朴昌玉·許哥而 등 蘇聯2世派는 거의 다 숙청되었고 또한 北韓內에서 蘇聯의 이른바 現代修正主義를 反對하는 運動을 長期間 실시했던 것이다.

北韓 權力構造의 이같은 親中共性向이 앞으로도 變化될 것 같지 않다. 1960年代 以前까지는 北韓權力的 高位級들이 적지 않게 蘇聯의 高級黨學校 등에서 再教育을 받았고 또한 北韓權力的 장차 엘리트로 될 젊은 層이 많이 蘇聯에 留學했으나 60年代 이후에는 이것들이 모두 中斷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對中·蘇 嚴正中立路線

北韓이 對中·蘇關係에 있어서 中立 乃至 嚴正中立路線을 택할 要素는 다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첫째, 北韓의 安保에 關한 利害關係이다. 即 對中·蘇關係에 있어서

註 21) 「근로자」 (1966.10.5)

어느 한쪽으로서의 偏向보다는 中·蘇 양국과 다같이 友好·協力關係를 유지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며, 그렇기 위해서는 對中·蘇 中立路線이 不可避하다.

前述한바와 같이 60年代 初半 北韓이 對中共 偏向으로 因해 北韓의 安保에 重大한 威脅을 초래한 사실은 歷史的 教訓이라고 하겠다.

또한 北韓의 對蘇偏向으로 因해 68~69년에 北韓·中共間에 國境紛爭이 야기되는 등 兩側間의 緊張이 高潮됨으로써 北韓의 安保에 커다란 威脅을 加했던 것이다.

지금 北韓의 安保에 對中·蘇 協力關係가 寄与하고 있는 特徵으로서 蘇聯은 北韓武力의 現代化에 新武器를 供給하고 있는 점이며, 中共은 北韓이 戰爭에 돌입했을 때 6.25戰爭때처럼 地上軍을 파견할 것이라는 期待라고 하겠으며 이러한 事情은 80年代까지도 大體로 變化가 없을 것으로 展望된다.

한편 北韓은 中·蘇와 各各 체결하고 있는 軍事同盟條約이 어느 한쪽도 脆弱化되지 않고 다같이 強力한 背景으로 되고 있을 때 그의 安保가 보다 確固할 것이라고 보게 될 것이다.

둘째, 北韓의 統一政策 및 戰略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對中·蘇關係에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서의 偏向보다는 中·蘇兩國과 다같이 友好·協力關係를 유지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하다고 北韓 最高指導층은 評價할 것이다.

北韓은 共產化統一에 이른바 決定的 時期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3大革命力量 即 北韓의 革命 및 南韓의 革命力量과 함께 國際的

革命力量이 필요하다고 말해 왔으며 國際的 革命力量가운데 中·蘇로부터의 支援을 第一次的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겠다. 金日成은 55年 12月 이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일 우리가 5年이나 10年間 平和를 유지하면 蘇聯은 물론이고 6億이상의 人口를 가진 中國의 威力은 비할 바 없이 強大해 질 것이며, 全体 社会主義陣營의 力量은 보다 강화될 것이다」²²⁾ 北韓은 70年代에도 그들의 統一政策에 대한 國際的 協調에 있어서 對中·蘇 協力關係가 優先的 意義를 갖는다고 거듭 확인하였다.

北韓은 그들의 統一政策 및 戰略에 있어서 關鍵으로 되고 있는 것을 駐韓美軍의 撤収問題라고 보고 있다. 金日成은 78年 9月 北韓政權 수립 30周年에 즈음한 연설에서도 駐韓美軍이 統一에 最大障礙라고 強調하였다.²³⁾

한편 美軍의 韓國駐屯은 美國政府의 對韓半島政策 뿐만 아니라 韓半島를 에워싼 美·蘇·中共 및 日本등 強大國들 間의 權力政治와 關聯되고 있는만큼 美國政權의 撤軍政策에는 上記 4強關係가 變數로 된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北韓은 駐韓美軍의 撤収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싫든 中·蘇의 外交에 依存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다.

註 22) 「김일성 선집」, 제 4 권, 「思想에 있어서의 教條主義와 形式主義를 퇴치하는데 대해서」, PP 342 ~ 343 (조선노동당 출판사, 1960. 平壤)

註 23) 金日成演說 (1978.9.9), 北韓政權수립 30周年에 즈음한 演說.

또한 北韓이 赤化統一을 위한 戰爭을 일으켰을 경우에 北韓側은 美國의 參戰을 制止하는데 中·蘇의 對美牽制를 要請할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事情에 비추어서도 北韓은 對中·蘇關係를 所重하게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다.

세째, 北韓은 統一政策과 關聯된 外交에서 뿐만 아니라 非同盟外交를 비롯한 全般的인 外交政策의 利害關係에 비추어서도 對中·蘇關係에서 어느 한쪽으로는 偏向보다는 兩國과 다같이 友好·協力關係를 維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評價할 것이다. 60年代 이래 北韓의 非同盟外交가 急伸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要因은 中共의 背後支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北韓의 中東外交에는 蘇聯의 支援이 決定的 役割을 하였고, 70年代에는 蘇聯의 「아프리카」進出이 積極化됨에 따라 北韓의 「아프리카」外交에 대한 中·蘇의 支援比重은 伯中하기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또한 北韓의 UN外交에 있어서도 中·蘇가운데 어느 한쪽에 偏向할 수 없게 되고 兩國의 同時的 支援이 必要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네째, 北韓의 經濟發展을 위한 國際的 협력이라는 면에서도 對中·蘇關係에 있어서 어느 한쪽에서도 偏向하지 않고, 다같이 友好·協力關係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北韓의 對中·蘇關係에 있어서의 어느 한쪽으로는 政治的 偏向은 다른 한쪽에 의한 對北韓 經濟援助의 激減이라고 하는 經濟的 報復의 反應이 보이기 마련임은 60年代의 體驗이었따.

60年代까지는 北韓經濟의 對蘇 依存度에 比하면 對中共 依存度는 보
잘 것 없었던만큼 北韓의 對外經濟協力の 利害關係에 국한한다면 對
蘇偏向의 要素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70年代에는 北韓에 대한
石油供給에 있어서 中共의 比重은 점차 높아져 현재는 中·蘇가 거
의 同等한 量의 石油를 供給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北韓은 中共으
로부터의 送油管에 의존하여 安州를 中心으로 西部地帶에 대규모 工
業團地를 建設하고 있다. 더우기 蘇聯은 北韓이 「베트남」의 「캄
보디아」侵攻에 대해서 「베트남」을 비난하고 「폴포트」旧 「캄보디
아」政權을 비호했다는 理由로 對北韓 石油供給을 半減했다는 未確認
報導도 있거니와 石油供給을 北韓에 대한 政治的 壓力手段으로 利用
할 可能性이 있어 北韓經濟의 對中共 依存度는 相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하겠다.

北韓이 經濟的 自立이 없이는 政治的 自主性도 지킬 수 없다고
거듭 強調하고 있는 것은 北韓經濟의 지나친 對蘇依存度を 회피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것이다. 24)

註 24) 金日成演說(1970.11.5), 勞動黨 5차黨大會에서의 報告演說.

第 5 章 結 論

1. 北韓이 選擇하게 될 外交路線

前章에서 우리는 北韓의 外交路線選擇要因으로 ①統一政策 ②經濟發展 ③安保問題 ④第3世界外交등을 꼽고, 이들이 政策路線 設定에 차지하는 비중을 검토했다. 물론 이같은 要因들이 路線設定에서 차지하는 優先順位는, 상황의 變化에 따라 뒤바뀔 수 있다는게 당연하다. 그러나 本稿는 現代의 3角協調體制라는 狀況이 그대로 존속, 내지는 점진적인 發展이 있으리라는 前提下에 北韓의 外交路線 變化可能性을 究明하고자 했다.

外交路線이 바뀔 경우 北韓이 選擇할 수 있는 路線으로는 그들이 中·蘇關係의 틀을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①反中共·親蘇路線 ②親中共·反蘇路線 ③對中蘇嚴正中立路線등 3가지 模型을 설정, 이중 어느 하나를 選擇했을 경우의 利害得失關係를 낱낱이 분석했다. 그렇다면 北韓이 選擇할 外交路線은 과연 어떤 方向일까?

以上과 같이 연구, 分析, 綜合한 結果 70年代와 마찬가지로 80年代에도 中·蘇 등거리外交, 즉 中立路線을 選擇할 可能性이 가장 濃厚하다는 結論에 도달했다. 中·蘇 兩國중 어느 한쪽과도 關係를 악화시키지 않고 衡平의 原則에서 다같이 友好·協力關係를 유지하는 政策을 堅持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다.

그理由로는 첫째, 北韓의 安保, 統一政策 및 國際外交의 利害得失에 비추어 對中·蘇關係에서 어느 한쪽에서의 偏向보다는 中·蘇兩國과 다같이 友好·協力關係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둘째, 北韓의 中·蘇 어느 한쪽으로의 偏向에서 얻을 수 있는 利得은 그에 따른 損失과 危險을 代償·克服하고도 남을만큼 크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中·蘇 兩國 어느쪽도 北韓에 걸려있는 戰略的 利害關係가 너무 莫重하다는 사실을 北韓으로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한쪽으로의 完全偏向은 다른쪽으로부터의 무자비한 보복이 뒤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럼에도 北韓이 反蘇를 각오하고 美·日·中共 3角協調体制의 틀에 들어가 西方諸國으로부터의 經濟·技術協力을 中共方式에 의해 받아들일 政策路線으로 轉換할 수 있을것인가가 本研究의 中心課題라 하겠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2가지만 보아도 그같은 政策轉換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하나는 北韓 産業의 基幹을 이루고 있는 16개의 大規模 工廠의 건설 또는 운영이 蘇聯의 技術원조에 의존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北韓 工業의 海外 原料依存度 50% 가운데 대부분을 蘇聯이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²⁵⁾ 다른 또하나의 北韓安保의 蘇聯依存分을 中共이 쉽게 代置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註 25) 前掲, 労働党 5次大会에서 北韓産業의 原料自給度を 70%로 向上할 것을 강조했음. 현재의 自給度は 약 50%로 추정되고 있음.

이처럼 北韓이 對中·蘇關係에서 쉽사리 中立路線을 逸脫하지 못 할 것이므로 對西方政策에 있어서도 劃期的인 轉換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할 수 있다. 다만 80年代엔 현재의 政策軌道內에서 對西方 關係改善이 다소간 進전되고 이에 따라 經濟·技術協力의 幅이 넓어지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또다른 우리의 主要 關心事는 蘇聯이 3角協調體制라는 對蘇包圍 網을 築기위해 北韓에 大規模 軍사원조를 제공, 南侵을 便賦하는 「제 2의 베트남化」 가능성이었다. 그러나 北韓으로서는 中共의 보복 및 100% 승리를 자신할 수 없고 막중한 위험부담 때문에 호의적인 반응을 기대하기 어렵고, 蘇聯도 對美 데탕트政策을 의식,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展望을 갖게됐다.

要 約

本橋는 東北亞를 중심한 國際秩序가 최근에 와서 蘇聯 對 美国·日本·中共의 3角協調体制의 對峙狀態로 바뀌었음에 留意, 이 중에서 3角協調体制가 成立된 背景 및 그것이 韓半島에 미치는 影響, 특히 北韓의 外交路線에 어떤 影響을 미칠것인가를 評価해보자는데 研究의 目的을 두었다.

먼저 3角体制論 登場의 理論的 背景으로 美国의 中·蘇關係專門家인 Micael Pillsbury의 所論을 소개했다. 그는 中国伝來의 以夷制夷論的 発想으로 美·中共의 軍事적 유대 可能性을 예견했었다.

蘇聯勢의 팽창을 막기위해 中共은 美国의 힘을 이용하고 美国역시 中共의 軍事력을 빌려 이에 對処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서로의 必要에 의해 中共은 美·日同盟体制 가까이에 접근해왔고, 美·日이 이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3角協調体制라는 새로운 對蘇對抗体制를 구축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3角協調体制는 그 자체 安定性이 결여되어 있고 다만 蘇聯勢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겠느냐에 1차적인 관심을 두고있는 정도이다. 따라서 蘇聯勢의 견제를 위한 準同盟体制로의 發展過程에서 關係列強間의 고도의 政治外交戰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는 이같은 과정에서 빚어질 주변情勢의 變化가 필경 韓半島의 將來에도 심각한 影響을 미칠것으로 보고 周辺 4強의 韓半島政

策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했다. 또 이에 따라 南北韓은 어떤 立場에 놓이게 될지도 아울러 분석했다.

이 결과 全体的으로는 3角協調體制가 東北亞의 安定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공산이 크겠으나 이를 받아들이는 蘇聯과 北韓의 態度如何에 따라서 상당한 위험성도 따르리라는 판단을 갖게 됐다.

問題의 焦點은 北韓의 態度가 과연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있다 하겠다. 北韓의 現外交路線이 그대로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새로운 길로 바뀔 것인가를 알아보자는 것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는 北韓의 外交路線 選擇要因으로 ①統一政策②經濟發展③安保問題④第3世界外交등을 꼽고 이들이 北韓外交에 미치는 비중을 분석했다. 그런다음 이들 要因의 비중을 염두에 두고 北韓의 外交路線 志向모델이라할 수 있는 ①反中共·親蘇路線②親中共·反蘇路線③對中·蘇嚴正中立路線중 어느 하나를 選擇했을 때의 得失關係를 分析, 검토했다.

이같은 分析에서 北韓은 앞으로도 嚴正中立路線을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濃厚하다는 結論에 도달했다. 그 이유로는 ①北韓 安保, 統一政策 및 國際外交上的 利害得失에 비추어 어느 한편으로의 偏向보다는 中·蘇 兩國과 다같이 友好·協力關係를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며 ②對中·蘇 어느 한쪽으로의 偏向에서 얻을 수 있는 利得은 ~~프로로~~인해 수반하게 될 損失과 危險을 代償·克服하고도 남을만큼 크지 못하리라는 점 때문이다.

이처럼 北韓은 對中·蘇關係에서 쉽사리 逸脫하지 못할 것이므로

对西方政策 역시 劃期的인 轉換을 기대하기는 어렵다하겠다. 다만 80年代에는 현재와 같은 中立路線의 軌道內에서 对西方關係改善이 다소간 진전되고, 이에따라 經濟·技術協力の 幅이 약간 넓어지는데 그칠것으로 展望되는 것이다.

The Tripartite Cooperation System
among U.S.-Japan-China and Its Impact
upon the Foreign Policy of North Korea
(Summary)

Moon, Doh Bin

The Research Institute on Reun-
ification & Security, The Seoul
Shinmun

This article aims to estimate what kind of impacts the Tripartite Cooperation System of U.S.-Japan-China will give upon North Korean foreign policy, including the impacts to the entire Korean peninsular, and to analyze the background of this system formation.

First, this article introduces the theory of Micael Pillsbury who is well known as a China expert in America, to help understanding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tripartite cooperation system formation. Pillsbury predicted that U.S.-China may go on a military alliance in thought of inducing a third power to meet an enemy.

With these mutual Needs, China approached to the U.S.-Japan alliance system, and this two nations actively accepted the third power as their another partner, forming a

tripartite cooperation system to meet the Soviet expansionism.

But all the three nations of this system give a primary intention how effectively to deter the Soviet expansionism their major common enemy, and also the system itself is in short of concrete tie which will give assurance to the stability of the system. In light of these aspects, we can expect to coming of sophisticated diplomatic offensives among the related four powers in process of forming a more strong tripartite system.

A changed environment resulting in this diplomatic offensives in the future, may give any kind of harmful impacts to the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r.

Intending to this problem, this article analyzed how the four powers will unfold their foreign policies for South and North Korea and assessed also what kind of threats the two Korea will face.

In this analysis, this article estimated that the tripartite cooperation system will elevate the possibility of improving the North-East Asian Stability in view of total atmosphere. But in some cases as both North Korea and Soviet adopt any hard line to meet the tripartite system the stability of the North-East Asia will be shaken heavily. Then, what kind of diplomatic doctrine will the N. Korea

adopt? In other words, will the N. Korea maintain current foreign policy or shift its foreign policy to another new line? This question is the key point of this article.

Answering to this question, this article pointed out major four factors which N. Korean regime would give priority to adopt diplomatic line, and assessed how much weight they will occupy. Four factors are ① reunification policy ② Economic development ③ security problem ④ diplomacy for the Third World.

The next step was to look out the possible diplomatic lines which N. Korea will head on. This article presented three Models : ① pro-China, anti-Soviet ② anti-China, pro-Soviet ③ strict neutralism between China and Soviet.

After all this article reached a conclusion that N. Korea would adhere to the current neutralism. There are two reasons for this.

First, it more beneficial for the regime to maintain friendly and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both sides in light of her security, reunification policy and diplomatic expansion to the Third world. Second, the gains by heel over any one side couldn't cover or compensate the loss and risk that will follow without fail by seeking this foreign policy. The most of this loss and risk will be created by the other side.

The fact that N.Korea will not unrail easily from equidistant line means it also will not be able to turn dramatically its foreign policy to the western countries.

Thus, the relation between The West and N.Korea will be improved a bit and the width of econom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between two sides will be widened a little more.